**3주차 인간실격 논제**

자유논제 1

**Q. 요조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p.13) 라고 말합니다. "서로 속이면서 살아가는, 혹은 살아갈 자신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인간이야말로 난해한 것"(p.27)이라고 말하는데요. 인간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이 있지만 단념할 수가 없어 '익살'이라는 실로 간신히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인간을 바라보는 요조의 이런 생각을 어떻게 보시나요?**

|  |
| --- |
|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광대 짓이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사람이란 것이 알 수가 없어졌고, 저 혼자 별난 놈인 것 같은 불안과 공포가 엄습할뿐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웃과도 거의 대화를 나누지 못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체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저의 최후의 구애였습니다. 저는 인간을 극도로 두려워하면서도 아무래도 인간을 단념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광대라는 가는 실로 간신히 인간과 이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늘 웃는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필사적인, 그야말로 천 번에 한 번밖에 안 되는 기회를 잡아야 하는 위기일발의 진땀 나는 서비스였습니다. (p.16) |

요조가 가면을 쓰고 인간을 대하는 이유는 어려서부터 거짓 가득한 인간세상 본질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에게서 타산적이고 겉과 속이 다른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며 인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요조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본모습을 감추었고, 그들의 비위에 맞추기 위해 ‘익살’이라는 가면을 씁니다. 학창 시절까지 잘 유지되어오던 그 ‘가면’의 무게는 점점 버거워져 자신을 짓눌렀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그는 성인이 되면서 인간으로서의 삶을 포기했습니다.

자유논제 2

**Q.** **주인공의 아내는 한 상인을 믿었지만 좋지 않은 일을 당했습니다. 이와 같은 천진무구한 신뢰심은 잘못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을 어느 정도까지 신뢰해야 할까요?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해보세요.**

|  |
| --- |
| ... 용서할 것도 용서받을 것도 없었습니다. 요시코는 신뢰의 천재니까요. 남을 의심할 줄이라곤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한 비참한 일. p.138 ... 저는 유부녀가 겁탈당하는 이야기를 이 책 저 책 찾아서 읽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요시코처럼 비참하게 능욕당한 여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p.139 |

어린 요시코의 신뢰심이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지키는 것은 이성적인 판단 중에서도 본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신뢰할 때에는 자신을 지키면서 혹은 파괴하지 않는 선에서 공감, 목표를 가질 때에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시코의 신뢰심이 잘못이긴 하지만 ‘나’의 잘못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길가던 상인에게 범을 당하는 시간에 술을 마시며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요시코는 요조가 ‘신뢰의 천재’라고 부를 정도로 불신과 공포로 가득 찬 인간 세상에서 희망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요조에게 있어 요시코는 삶에 대한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요조 본인 스스로 소외된 인간으로 취급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에게 희망을 준 여인이라면 요시코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면 안되었을 것입니다.

선택논제 1

**Q. 인간실격의 요조는 진정 인간이 아니였을까요? 무엇이 그를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만들었을까요?**

|  |
| --- |
| 호리키의 그 이상하고도 아름다운 미소에 저는 울었고, 판단하는 것도 저항하는 것도 잊어버렸고, 자동차를 탔고, 여기에 끌려와서 정신 이상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나가도 저는 여전히 광인, 아니 폐인이라는 낙인이 이마에 찍혀 있겠죠.  인간실격. 이제 저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p.131 |

요조는 세상 사람들의 불가사의한 허영과 체면 차리기를 분석합니다. 어느 정도 가식과 위선이 일상이 된, 흔히 처세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파한 그는 어쩌면 가장 순수한 인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과의 연결을 위한 광대짓, 여자에게 정신적으로 의존하는 삶, 상실로 인한 약물 중독, 자살 기도는 요조의 심리와 정신이 단단하지 못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가 정신적인 외압을 견뎌낼 힘을 가져 자신을 충분히 돌보았다면 주변의 권유로 인해 정신병원에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선택논제 2

**Q. 본문중에 요조의 노트를 받은 마담이 그것을 작가에게 넘겨주며 인간이 그렇게까지 망가지면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 요조 같은 사람들에게는 더 나아질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  |
| --- |
| *“…내가 얼마 전에 처음으로 읽어보고….. .”*  *“울었습니까?”*  *“아니, 울었다기보다… . 끝난거지, 뭐. 인간도 이렇게까지 되면 이제 다 틀렸어.”*  *(139p)* |

요조는 인간과 세상을 두려워하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인간을 믿고 사랑하며 진실하게 살고자 합니다. 이 점을 보면서 요조가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불행을 겪고 다시 일어서고 하는 과정이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의 결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요조 같은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선택논제 1

1. 첫 번째 수기에서 요조는 자신에게 있는 열 개의 재난 덩어리와 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실용적인 괴로움, 그저 밥만 먹을 수 있으면 그것으로 해결되는 괴로움’을 가늠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들이 흔히 겪는 고통의 무게와 요조와 같은 인물 군이 겪는 고통의 무게는 어떻게 다를까요?

|  |
| --- |
| 한마디로 나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웃 사람들의 괴로움의 성질과 정도라는 것이 전혀 짐작이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실용적인 고통, 그저 밥만 먹을 수 있으면 그것으로 해결되는 괴로움, 그러나 그 괴로움이야말로, 제일 지독한 고통이며, 제가 지니고 있는 열 개의 불행 따위는 상대도 안 될 만큼 처참한 아비규환의 지옥일지도 모릅니다. 그건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15p) |

**4주차 인간실격 발제**

**자유논제 1**

1. **어느 겨울 도쿄의 긴자 거리에서 요조는 생각합니다. 자신의 불행은 모두 자신의 죄에서 비롯된 것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항의할 수 없었다고 말입니다. 불행에는, 항의할 수 있는 불행과 항의할 수 없는 불행이 있다는 요조의 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  |
| --- |
| 도쿄에 큰 눈이 내린 밤이었습니다. 저는 취한 채 긴자 뒷골목을, 여기는 고향에서 몇백 리인가, 라고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듯이 노래하면서 내리는 눈을 구둣발로 차며 걷다가 갑자기 토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최초의 각혈이었습니다. 눈 위에 커다란 일장기가 그려졌습니다. 저는 잠시 쭈구리고 앉아서 더렵혀지지 않은 눈을 양손으로 떠다가 얼굴을 씻으면서 울었습니다.  여기는 어디의 샛길이지?  여기는 어디의 샛길이야?  어린 소녀의 서글픈 노랫소리가 환청처럼 희미하게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불행. 이 세상에는 갖가지 불행한 사람들이, 아니 불행한 사람들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의 불행은 소위 세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항의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세상’도 그 사람들의 항의를 쉽게 이해하고 동정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불행은 모두 제 죄악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게게도 항의할 수 없었고, 또 우물쭈물 한마디라도 항의 비슷한 소리를 한다면 딱히 넙치가 아니더라도 세상 사람들 전부가, 잘도 뻔뻔스럽게 그런 말을 하느냐고 어이없어할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도대체 이 세상에서 말하는 ‘방자한 놈’인 건지 아니면 마음이 너무 약한 놈인 건지 저 자신도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타고난 죄악덩어리인 모양입니다. 나 스스로 한없이 불행해져 가기만 할 뿐, 그를 막아볼 구체적인 대책 따위는 없는 것입니다.  (145-147p) |